

진로교육 바로 알기

2018학년도 대학입학 핵심 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데요. 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졌으므로, 2018학년도 대학입학이 어떻게 시행될 계획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시모집 선발 비중 증가

현재 고3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17학년도에는 수시모집 전형으로 248,669명(69.9%)이 선발될 예정이고, 고2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18학년도에는 259,678명(73.7%)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 학생부 중심 전형 증가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비중이 2016학년도에는 57.4%, 2017학년도에는 60.3%, 2018학년도에는 63.9%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224,166명(86.3%)이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 논술 모집인원 감소

논술시험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2016학년도에 15,349명(30개교), 2017학년도에 14,861명(30개교), 2018학년도에 13,120명(31개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실시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고, 등급은 기존 9등급 체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http://adiga.kr/>)에 5월 중 게재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진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1600-1615),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등을 이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로소식

대학교 선택, 진로레시피가 도와드려요!

대학교 지원, 어떻게 해야 하며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가 대입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의 변화 - 종류 많은 고등학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 대학교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9일, 11일, 13일 방송 - 출연자 : 장광원(교육컨설팅 그룹 대표)
청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스마트폰 : 팟빵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앱 속 진로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QR코드	 <p>← 팟빵 앱 다운로드</p> <p>※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p>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이벤트!

이벤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하면 당첨확률 2배 UP!!

방법 1	<p>팟빵 게시판에 후기 남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팟빵(www.podbbang.com/)에서 진로레시피 검색 2. 청취소감 및 원하는 주제 댓글달기, 팟빵 구독하기, 별점 주기
방법 2	<p>내가 쓰는 SNS에 소문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접속 ▶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www.podbbang.com/ch/7445 2. 위의 내용을 SNS에 업로드 3. 응모하기 버튼 눌러 내가 올린 글 URL 주소 입력하기
이벤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5월 23일(월) ~ 6월 6일(월) · 당첨자발표: 6월 13일(월) ▶ 커리어넷 공지사항 ·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총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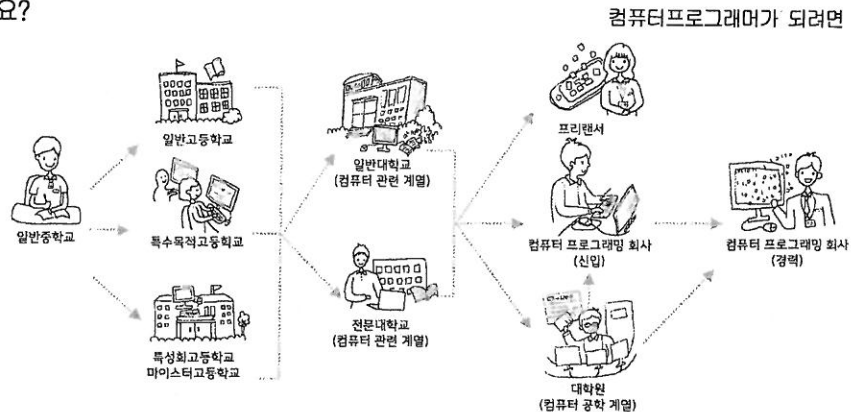




* 「진로솔루션」은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대해 진로·진학(학습)·직업전문가가 각 분야의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월 1회 연재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커리어넷」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Q1. 컴퓨터프로그래머는 어떤 일을 하나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기획(어떤 프로그램을 누구를 대상으로 왜 만들 것인지 구상), 설계(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것인지 계획), 개발(실제로 사용할 프로그램 제작), 유지 및 보수(개발물에 대한 테스트 및 오류 방지를 위한 점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Q2. 프로그램 개발 내에도 세부 분야가 있나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HTML, CSS, JavaScript 언어를 사용해 주로 사용자들의 눈에 보이는 웹을 개발합니다. 반면 백-엔드 개발자는 흔히 웹개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로, PHP, asp, JSP 등의 언어를 사용해 전달된 데이터 포맷, 데이터베이스 처리, 웹서버 개발, DB구축, 네트워크 작업 등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데이터 작업을 처리합니다. 최근에는 두 분야를 다 할 줄 아는 풀스택(full-stack) 개발자를 많은 기업에서 원하는 추세입니다.

Q3.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부터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C언어에서 파생된 것이 많으므로 기본적으로 C언어를 이해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란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의도와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고, 페이스북은 PHP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프로그래밍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하여 그에 적합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컴퓨터프로그래머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새로운 프로그램은 보통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앞으로 요구되리라 예상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력은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는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전망

C언어를 독학하는 학생인데,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 때문에 걱정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에 따르면 프로그래머가 48%의 확률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개척자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탐색해보요”

진로 전문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채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어떻게 개척하면 좋을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직업세계를 고려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융합해 새로운 직업을 상상할 수도 있고, 한 직업을 세분화해 새로운 직업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래머!”

진학 전문가

논리적 분석이나 수리력 등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나 창의력 등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설계 등의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발맞춰 꼭 필요한
프로그래머 되기”

직업 전문가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역시 프로그래머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나 관리를 하는 매니저급의 직군이 새로 탄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